

농촌 노인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

박 공 주*(농촌생활연구소 생활지도관)
이 정 화 (농촌생활연구소 농업연구사)
김 양 희 (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)

농촌지역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너무나 낮다. 1960년대 이후 계속되는 이촌현상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를 가져와 2000년 현재 노인인구 14.7%로 도시지역 노인인구(5.4%)의 2.7배에 달한다. 농촌사회가 노인중심의 지역이 되고 있고 농촌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. 도시노인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농촌노인들은 특히 사회적,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다. 그들의 사회 교육적 욕구들이 파악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농촌노인들의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.

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(1) 3가지 차원(가족생활, 영농생활, 지역사회활동)에서 농촌노인의 교육적,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, (2)그들의 요구분석에 기초하여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이러한 목적에서 413명의 농촌노인과 110명의 생활지도사들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, 자료분석에는 spss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,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.

주요 연구결과를 보면, 대부분의(94.1%) 농촌노인들은 다양한 사회적, 교육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, 그들은 '자녀와의 관계증진', '건강과 건강관리', '영농기술', '화초재배', '자원봉사활동'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원하고 있었다.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각 영역에 대한 그들의 욕구우선성을 고려하여 8개의 교육프로그램과 4개의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4 Session의 가족생활 프로그램, 4 Session의 영농생활 프로그램, 4 Session의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등으로 구성하였다.

유형별 프로그램 일정과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은 1월부터 4월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 경제생활에 대한 교육으로 노인자신의 인생설계를 하는 것으로 첫 교육이 이루어진 후 가족관계, 건강관리, 여가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. 가정생활프로그램의 성격은 모두 교육프로그램이다. 영농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육시기를 실습교육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는데, 농약사용법에 대한 일정은 6월에, 공동작업장경작에 대한 일정은 8월, 농산가공기술교육은 농산물 재배 후 수확이 가능한 10월,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은 농한기인 12월에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. 영농활동프로그램의 성격은 모두 교육프로그램이다. 지역사회활동프로그램은 일정편성에 있어 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시기를 택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.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을 겨냥하여 5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, 자연보호활동은 녹음이 우거지는 7월에, 전통놀이전승활동은 추석명절이 끼어있는 9월에 실시하고, 향토유적지견학은 영농 수확 후 비교적 한가한 날이 많은 11월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편성하였다.

고령화 사회, 여러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노인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토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.